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윤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캄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무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 제1독서 | 에제 18,25-28

### 화답송 | 시편 25(24),4-5.6-7.8-9(◎ 6ㄴ 참조)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제2독서 | 필리 2,1-11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 복음 | 마태 21,28-32

**영성체송** |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성가** | 입당 18                      예물준비 241(216)  
영성체 182(183)              파견 286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 미사 봉헌

####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박요한 사도요한
- 박성배 토마스
- 최진영 스테파노, 김재윤 요셉
- 케빈오주 사제
- 김주형 비오

#### 생미사 지향

- 백승민 안드레아 생일 축하
- 류상현 안젤로, 김민희 로사 부부의 결혼
- 이영주 비오 축일 축하
- 멜라니와 메튜의 영육 건강을 위하여
- 정세령 미카엘라 축일 축하
- 배성용 가브리엘 영육간의 건강
- 박혜화 도미니카&Family
- 이예진 유스티나 축일 축하
- 김민서 미카엘라 축일 축하

| 날짜     | 해설  | 1독서 | 2독서 | 보편지향    | 성체 분배   | 복사                  |
|--------|-----|-----|-----|---------|---------|---------------------|
| 9월 27일 | 국민준 | 강호영 | 전푸름 | 강호영 전푸름 | 정다경 진서윤 | 김민서 허우현             |
| 10월 4일 | 김진섭 | 민완준 | 민덕미 | 민완준 민덕미 | 김중선 정다경 | 한서희 최예준 양지수 이예진 허우현 |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                          |              |
|---------------|--------------------------|--------------|
| 주일 미사         | 오전 09:15 대성전             |              |
| 청년 미사         |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아래성당   |              |
| 고해 성사         | 08:30-08:50 아래성당 고해소     |              |
| 혼인 성사         | 면담 후 결정                  | *신청: Sr.마리루시 |
| 유아 세례         | 면담 후 결정                  | *신청: Sr.마리루시 |
| 봉 성 체         | 매월 1번째 목요일               | *신청: Sr.마리루시 |
| 예비신자 교리       | 일반인을 위한 교리               | *신청: Sr.마리루시 |
| 견진 교리         |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              |

**오늘 2차 봉헌 있습니다.**

오늘 본당 행사로  
산 다미아노홀에서의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예비자 교리**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10월 4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13(주일)- 2027년 3/28(주일)

장소: 1:00PM-2:30PM, 프란시스룸(9/27: 3층 회의실)

신청 방식: 신청서 신청/제출(seoulsb@gmail.com)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 2027년부터 세례 받으시는 분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또한 2027년 이전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견진성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축복예식**

일시: 10월 3일(토) 2:00PM 장소: 산 다미아노홀

신청: 646-832-7397 (Sr. 마리루시)

\*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의 경우, 사진으로 참여 가능

**2026년 '영성의 해' 제5차 특강**

|               |                           |                                |
|---------------|---------------------------|--------------------------------|
| 10/11<br>(주일) | 아래성당<br>(11:00AM-12:30PM) | Sr. 마리울리안나<br>(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
|---------------|---------------------------|--------------------------------|

**10월 로사리오 성월, 주일 미사전 묵주기도**

10월 한 달 동안 8:50AM 부터 모든 교우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무료 독감예방주사 접종(Free Flu Shot)**

일시: 10월 18일(주일) 10:20AM-2:00PM(주일미사 후)

장소: 산 다미아노홀

주최: "Linda" from Walgreens(pharmacy store)

준비물: 본인 ID or 의료보험증(소지한 사람의 경우)

- 코리안 오피스에 독감예방접종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성하시면 당일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의료보험 소지하신 분들은 코로나와 폐렴 예방 접종도 가능합니다.

**< KCB 가톨릭 방송 기금마련 걷기 대회 >**

1. 걷기대회 일정: 2026년 10/4(주일), 오후 2시
2. 참가비: \$30.00 (티켓을 구입하시면 경품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 1등추첨: 메주고리에 성지순례권  
(이외에 풍성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장소: 뉴저지 레오니아 구 오버팩  
Henry Hoebel Pavilion  
(40 Fort Lee Road, Leonia, NJ 07605)
4. 문의: 718-888-9130  
(KCB 미주가톨릭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St. Francis's influence on INTERFAITH Relationship"**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 회년  
본당공동체 1일 피정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회년을 맞아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순례 피정을 마련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되어 함께 가는 영적 순례에 한인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0/17(토), 8시 출발(32번가 단체버스)-3시 귀가

장소: Graymoor Retreat Center Garrison, NY

신청비: \$75(버스비+간식+점심 포함)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사무동 데스크

문의: Fr. Brian, tel 212-736-8500 ext. 232

[bjordan@stfranciscnyc.org](mailto:bjordan@stfranciscnyc.org)

**오늘의 말씀**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마태 21,31)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이시임 안나  
(1782-1816)

1782년 충청도 덕산 높은미(현 충남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이시임 안나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뒤 고향을 떠나 가난하게 살았다. 일찍부터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으나 이로 인해 가족이 괴로움을 겪자, 멀리 떨어진 동정녀 공동체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데려다주기로 한 교우 뱃사공에게 강제로 혼인당해

아들 종약을 낳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홀로 아들을 기르며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신자들이 모여 사는 경북 영양 진보 머루산 교우촌에서 지내다 1815년 을해박해 때 체포되었다. 안동에서 굳게 신앙을 증언한 뒤 대구로 이송되어 오랜 옥중생활과 혹독한 형벌을 견뎠다. 특히 아들 종약이 자신의 품에서 죽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

약 1년 6개월 뒤 사형이 확정되자 감사가 배교를 권유했지만, 이 안나는 예수와 마리아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1816년 12월 19일 대구 형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34세였다. 시신은 이듬해 3월 2일 친척과 교우들이 거두어 안장하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202, 가해, 2026. 09.27

##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이민/부동산 (아오스덤)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PETIQUE SALON

DOG GROOMING · DAYCARE · BOARDING

Petiquesalon@gmail.com

강동호 베드로

917-419-7444

444 2nd Ave, New York, NY 10010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1: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RESTORE STUDIOS

Dr. Iris M. Kim, PhD

▶ 레드라이트 테라피

▶ BREATHWORK

▶ 컴프레션 마사지

▶ 라이프 코칭

(212) 796-7414

6 East 39th St, Suite 300

New York, NY 10016

info@restorestudiosny.com

## 다시 만난 신약 성경

## 더욱 뛰어난 길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사랑에 대해 말하는 코린토 1서 13장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장을 가사로 하는 노래들도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들어보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13장 1절의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에서부터 읽기 때문에, 13장 전체가 어떤 전후 문맥 안에 들어 있는지는 눈에 덜 띄는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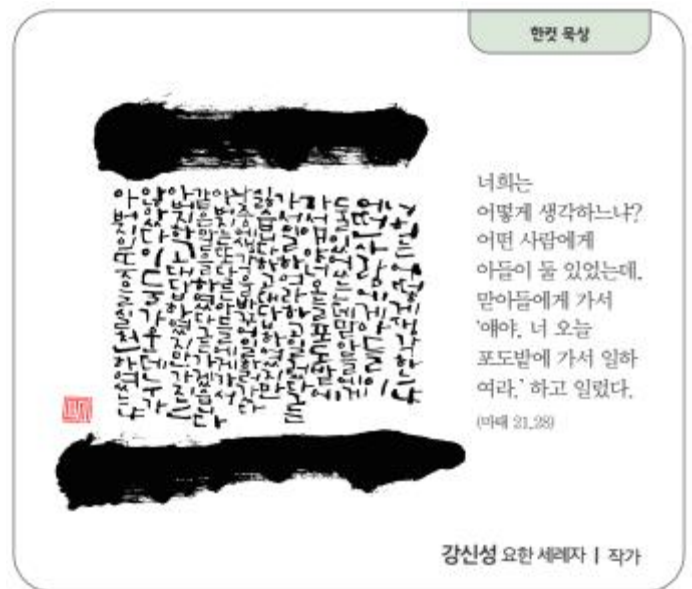
코린토 1서는 코린토 공동체의 상황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을 다루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주제가 공동체의 일치였습니다. 지난주 끝부분에 잠시 언급한 10장에서는 성찬례와 관련하여 다시 일치에 대해 말합니다. 성찬례의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고, 또 그 빵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럿이라 하더라도 한 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1장에서는 이에 따라 주님의 만찬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전례 규칙을 따지기보다, 성찬에 모인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합니다.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1코린 11,20).

그다음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은사들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 분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1코린 12,7).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가 특별히 뛰어나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동선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몸의 서로 다른 지체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입이 음식을 먹는 것은 입만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발이 걸어 다니는 것은 발만을 위해서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사도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교사가 있다면, 이는 하나의 몸을 길러 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안드레아 보첼리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거의 끝부분에 나온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본 영화이고 정확히 적어둔 것도 아니지만 대략 옮겨본다면) 어떤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고 돌보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린토 1서 13장은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이런저런 은사들을 지니고 있다 해도, 어떤 능력을 지니는 것보다 “더욱 뛰어난 길”(1코린 12,31)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그 사람들을 두드리지게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것을 공동의 선익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일치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조차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조차도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바뀌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나 “더욱 뛰어난 길”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교회를 한 몸이 되게 합니다.

\* 출처: &lt;의정부주보&gt;, No.1199, 2026, 가해, 2026. 09. 06.



\* 출처: &lt;서울주보&gt;, 제2633호, 2026년 09월 27일

## &lt; 사막에서 하느님과의 함께 피정 &gt;

- \* 일시: 2026년 11/16(일) ~ 11/21(토)
- \* 장소: Sacred Heart Retreat Center, Gallup, New Mexico
- \* 피정 지도: 이 소피아 수녀
- \* 협력사제: 김윤곤 아드리아노 신부님
- \* 피정비: 700불(수익금 일체는 원주민 사목에 쓰임)
- \* 문의: 이소피아 수녀.

Cell:718-690-6093, [sofiasfma@gmail.com](mailto:sofiasfma@gmail.com)

♠ 공항에서 피정의 집까지는 2시간 10분 거리입니다. 피정에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 시작하는 날 오후 2시까지 ABQ, NM 공항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시는 비행기는 마치는 날 1시 이후로 비행기 표를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